

2022년 6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경기북부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와이시티작은도서관/김경진	전쟁 말고 평화를 주세요/조재도/작은숲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예전처럼 사자와 저희 고슴도치가 초원에서 평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초원에 평화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고슴도치 족장님 말에 대왕 사자가 크게 머리를 끄덕였다.
2	햇빛21작은도서관/윤영연	춤추는 평화 / 홍순관 글 / 탐	평화는, 땅과 하늘이 제 숨을 쉬는 것입니다.
3	온가족비전도서관/길지애	비무장지대에 봄이 오면/ 이억배 글	비 무장지대에 겨울이 오면 남쪽의 군인들도 북쪽의 군인들도 등근달을 보며 고향 생각을 합니다
4	재미있는느티나무온가족도서관/김나연	우리가 헤어지는 날 / 정주희 글 / 책읽는곰	조금 더 올라가자 민들레 꽃밭이 나왔어요. 코코가 가르릉가르릉 소리를 내요. 노란 민들레가 좋은가 봐요. 나도 코코를 따라 가르릉가르릉 소리를 내 봐요. 나도 민들레가 좋아질 것 같아요.
5	하늘벗작은도서관/장희경	엄마에게/ 서진선 글	엄마가 보내주신 봉선화 씨앗을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심었다. 봉선화꽃이 가득한 옥상에서 엄마 노래를 듣고 있으면 정말 엄마랑 같이 있는 것만 같았다.
6	마상공원작은도서관/김은미	마음버스/김유 글 소복이 그림/천개의 바람	"마, 음, 예, 도, 꽃, 이, 피, 었, 어, 요." 밤톨머리 아이가 또박또박 소리 내어 말했습니다. 의자 등받이 광고판에 적힌 글이었습니니다. 꽃잎은 자꾸자꾸 날아와 손등에도 콧등에도 신발 위에도 내려앉았습니다.

2022년 6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광주지부

도서관명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책돌이도서관/신화숙	고라니 텃밭/김병하그림책/사계절	<p>김씨 아저씨는 아내를 위해 첫째, 둘째를 위해 텃밭을 만들고 정성껏 보살펴 풍성한 텃밭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또 다음날 누군가 채소를 먹어치웠습니다 아저씨는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네 이노음~ 딱 걸렸어" 아! 그런데..... 김씨 아저씨는 한숨도 못 자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씨앗이랑 모종을 꼼꼼히 심고 튼튼한 울타리도 세웠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마음이 아주 편안해졌습니다 (딱 걸린 그놈이 누구인지 그림책으로 확인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보세요. 평화는 결국 욕심내지 않는 마음 나누는 마음에서 옵니다)</p>
2	책문화공간 봄/김순정 영아	살아 있다는 건 다니카와 슌타로 시 비룡소	<p>... 살아있다는 것 지금 살아있다는 것 지금 멀리서 개가 짖는다는 것 지금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 지금 어디선가 갓 태어난 아기가 울음을 터트린다는 것 지금 어디선가 병사가 상처 입는다는 것 지금 그녀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 지금, 순간순간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 ...' 삶은 지속되고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한다 서로가 이어져있는 것이 힘이 되기를~~ 모든 이들에게 평화가 깃들기를♡</p>
3	아이숲어린이도서관/김영아	내가 라면을 먹을 때 / 하세가와 요시후미 글 그림 / 장지현 옮김 / 고래이야기	<p>그림책의 첫 장면에서는 어떤 어린이가 라면을 먹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라면을 먹을 때 다른 어린이들은 텔레비전을 보고 바이올린을 켜고 야구를 하고 요리를 해요. 반면 지구의 다른 한편의 어린이들은 아기를 돌보고 물을 길어오고 소를 몰고 빵을 팔고... 땅에 홀로 쓰러져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의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각자의 처한 상황은 이렇게나 다릅니다. 나만 행복하다고 평화롭다 말할 수 있을까요? 나와 우리 가족, 내 이웃, 내 나라, 더 나아가 온 세계가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p>

2022년 6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사무국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김수민	나무를 심은 사람 / 장 지오노 / 두레	그의 행동이 온갖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있고, 그 행동을 이끌어 나가는 생각이 더없이 고결하며,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런데도 이 세상에 뚜렷한 흔적을 남긴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한 잇을 수 없는 인격과 마주하는 셈이 된다.
2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정예서	재인, 재욱, 재훈 / 정세랑 / 은행나무	정말 사소한 초능력이 생긴 3명의 주인공이 만드는 작은 평화에 대한 이야기이다. 재인, 재욱, 재훈처럼 우리에게도 초능력이 있다.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는 용기, 부당하다고 느끼는 양심, 좀 더 나은 일상을 살고자 하는 작은 노력들. 이 모든 게 실은 초능력이라는걸!
3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박현진	단팍이 아니어도 좋아/유영소 지음/김이조 그림/그린북	원래 처음부터 딱 맞는 친구는 없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성격이 있어서 그걸 존중하며 같이 노는 거다. 놀다 보면 언젠가 딱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아니어도 괜찮다. 지금처럼 지내면 되니까. (p.94)
4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김현실	엄마에게/서진선 쓰고 그림/보림	소포 안에는 사진과 봉선화 씨앗 그리고 엄마가 불려서 녹음한 '봉선화' 녹음테이프가 있었다. 그날 밤 아빠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소리도 내지 않고 우셨다.

2022년 6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서울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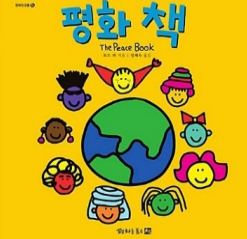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대조꿈나무어린이도서관/박순선	평화 책/토드 파 지음/평화를 품은 책	세상이 더 좋은 곳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책을 썼다는 작가의 말처럼 아무도 배고프지 않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모두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2	홍부네그림책도서관/김진희	평화란 어떤 걸까?/히마다 게이코 지음/사계절	평화란 내가 태어나길 잘 했다고 하는 것. 네가 태어나길 정말 잘 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너와 내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3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우미선	갈색아침/프랑크파블로프 글/ 레오니트 시멜코프 그림/ 휴먼어린이	어느 날 갈색이 아닌 모든 것들을 잡아들이라는 무시무시한 법이 생기고 사람들은 이 정도쯤이야 라고 침묵합니다. 하지만 즐겁게 살고 있는 일상을 빼앗아 가고 마음대로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다양한 사회에서 여전히 니편 네편을 가르고 국가의 권력과 힘 앞에 침묵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일상의 평화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말하는 사회일 때 가능한 일일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4	생글작은도서관/주영자	동백꽃이 툭./김미희 지음/토끼섬	4.3 희생자를 상징하는 동백꽃으로 전하는 평화와 인권 그림책. 4.3 희생자를 기억하며 그들이 있었던 자리에 헌화하는 아름답지만 가슴 아픈 그림책.
5	아차산아래 작은도서관 놀자/이지인	엄마에게/서진선/보림	봄이 왔다. 아버지 산소에도 봉선화 꽃이 피었다.

2022년 6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울산경주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울산북구작은도서관협의회(책누리작은도서관)/박지혜	평화는 무슨 맛일까?/올라디미르 라둔스키/비룡소	평화는 가끔 어디론가 사라져요. 하지만 기다리면 언젠가 꼭 돌아오지요.
2	울산북구작은도서관협의회(햇살작은도서관)/이윤진	씩스틴/권윤덕/평화를 품은 책	"민주주의 만세!" 폭도들의 외침은 노래가 되고 함성이 되어 광장을 세차게 흔들었다. '저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3	울산북구작은도서관협의회(책가방작은도서관)/하태연	두둑의 노래/장경선/평화를 품은 책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생명을 함부로 짓밟을 권리는 없단다. 나와 엄마 아빠 누나들 그리고 아무 죄 없이 단지 아르메니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꼭 기억해 다오.
4	하량작은도서관/배수경	대한민국 평화기행/권기봉/창비교육	아는 만큼 보인다. 반대로 보는 만큼 관심이 가고 알게 되기도 한다. 책장을 넘기며 저자들의 발길을 따라가다 보면 무심코 지나쳤던 평화의 흔적들을 떠올리게 된다.

2022년 6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인천지부			
소속 / 이름	책 사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짱뚱이어린이도서관/이소운		숨바꼭질 /김정선 글 그림/사계절	전쟁을 겪으셨던 나의 조부모님, 그리고 친정아버지의 어릴 적 모습이 떠오른다. 친정 아빠가 12살에 전쟁을 겪으셨다. 모든 것을 잃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도 마침내 살아내오신 세월. 어찌 안다고 할 수 있을 까마는 지금도 계속되는 전쟁과 갈 곳이 없어 난민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나라까지 넘어온 사람들을 떠올려본다. 희미해져가고 있고, 나와는 먼 이야기일 것 같은 일이지만 이 역사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잘 살아간다고 할 수 있을까? 아이들과 함께 두런두런 읽어보며 한국전쟁 이야기와 함께 난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볼만하다.
2 자람도서관/전민성		평화 책/토드파/평화를 품은 책	평화는 서로 다름을 아는 거고, 스스로를 기분 좋게 느끼는 거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거야. 네 덕분에 세계는 더 좋은 곳이 되는 거란다.

2022년 6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총청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해바라기도서관/박면우	꽃할머니/권윤덕/사계절	태평양전쟁 시기인 1940년대 일본군에 끌려가 온갖 고난을 겪었던, 실제 인물의 증언을 토대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림책으로 풀어냈지만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납 덩이가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아리기까지 하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꽃할머니의 아픔에 관심을 두지 않고, 수치심으로 평생을 보내셨지만.. 지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책을 통해 아픔에 공감하고 다시는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2	범지기10단지푸른작은도서관/오유미	숨바꼭질/김정선 글 그림/사계절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동네를 뛰어놀던 순박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친구 둘은 피난길에 숨바꼭질을 합니다. 박순득은 술래 이순득 피난처에서 찾습니다. 술래가 된 이순득은 고향에 돌아왔지만 박순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마을에 주저앉아 이순득이 외칩니다. "못 찾겠다, 꾀꼬리!" 피난길 콩밭에 누워 바라본 하늘이 예뻐다는 작가의 어머니 말씀에 녹아 있는 그림책입니다. 평화는 꼭 우리 뒷산 같습니다. 그냥 있는데 산불이 나지 않게 더럽혀지지 않게 조그만 돌아봐 주면 그냥 거기 있는 것인데..... 산불이 나고 더럽혀진 산을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이 어렵지만 그래도 그냥 거기에 있는 뒷산입니다.